두피·모발 관리 '기술경쟁'… K-뷰티, 헤어케어 고도화

바이오·디지털·의료 기술 결합해
모발 건조 시간 단축·탈모 치료 등
고부가가치 헤어테크 시장 개척

국내 뷰티 업계가 고기능성 헤어케어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시장 공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분자 펩타이드 등 바이오 신소재를 접목하고 뷰티 디바이스 기술까지 더해 K뷰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전통 뷰티 강자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주력 브랜드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헤어케어 부문을 적극 육성하며 매출 외연을 확장한다.

최근 공시한 '2026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평가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헤어 브랜드 '려'는 글로벌 럭셔리 뷰티 설화수, 스킨케어 이니스프리와 함께 대형 브랜드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이끌며 2026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2023년 대비 9%포인트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

려는 인도, 브라질 등 신흥 K뷰티 시장



그래비티 퀵 드라이 샴푸 /폴리페놀팩토리

에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신규 기술 '그로우 펩타이드'를 적용한 '루트젠' 제품군을 출시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헤어 브랜드 라보에이치 역시 CJ올리브영 등 멀티브랜드숍에서 브랜드 입지를 확보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3분기 기준 헤어 앤 뷰티 사업 누적 매출은 3733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의 10.8%를 차지했다.

전문성을 앞세운 신흥 강자도 약진하고 있다. 글로벌 두피 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를 운영하는 와이어트는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8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8%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76% 가까이 뛰었다. 또 올해 들어서는 1000평 규모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조직 인프라도 확충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닥터포헤어는 3세대 트리트먼트 '펩티본드 헤어 마스크'를 출시해 극손상모 시장으로 진출한다. 특히 모발 케라틴과 유사한 저분자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 펩타이드' 기술을 신제품에 집약했다. 모발 내부 빈틈을 채워 근본적인 손상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계 원천 기술을 상용화해 샴푸의 기능적 한계를 뛰어넘은 스타트업의 돌풍도 거세다.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석좌교수가 창업한 폴리페놀팩토리는 흥합 접착 원리를 응용한 폴리페놀 기술을 통해 탈모 케어를 넘어 '모발 건조 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이달 12일 정식 출시된 '그래비티 퀵 드라이 샴푸'는 앞서 5일 올리브영 사전 출시 당시 24분 만에 준비 물량이 완판됐다. 폴리페놀팩토리가 구현한 '드라이맥스 609' 기술은 바이오 신소재 폴리페놀이 모발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물기를 물방울 형태로 뭉쳐 떨어뜨리는 원리를 갖췄다. 임상 평가에서 대조군 대비 1.90배 빠른 건조 속도와 모발 뿌리 볼륨 23.56%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폴리페놀팩토리는 오는 2027년 1월 'CES 2027'에 3년 연속 참가해 원천 기술을 공유하며 K헤어테크의 위상을 알릴 계획이다.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도 자체 미용의료 기술을 탈모 치료 등으로 이식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주력 사업인 뷰티 디바이스를 개발하면서 고주파 미세천공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했다.

에이피알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지알 부스터 프로 X2'의 에어샷 모드 기술을 병용했을 때 탈모 치료제 성분 미녹시딜의 표피·진피 내 침착량이 단독 도포 대비 최대 2.40배 증가했고 모발 피복률, 굵기 등도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에이피알은 해당 연구결과를 지난 9월 국제 학술지 '파마슈티스'에 게재하기도 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 복용이 제한되는 여성 탈모 환자에게는 바르는 약물이 처방되나, 외용제의 낮은 약물 흡수율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에이피알은 이를 보완하는 유효성분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계획이다.

뷰티 업계 한 브랜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킨케어로 검증한 K뷰티 R&D 역량이 고부가가치 헤어테크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화장품 수출과 K뷰티 산업 지속가능성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다발성경화증 후보 효능 입증

국제학술지에 게재 승인
내년 임상 2상 진입 목표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다발성경화증 치료 후보 'IVL4002'의 비임상 효능 및 기전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에 게재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027년 임상 2상에 진입을 목표로, 미국 사업화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heranostics는 의학·생명과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SCI(E)급 국제학술지다. 이번 연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소개됐다.

IVL4002는 인벤티지랩의 미세유체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IVL-DrugFluidic'을 적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다. 미립구의 크기와 고분자 조성 등을 정밀하게 제어해 투여 초기에 약물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것을 줄이고, 1개월간 일정한 수준의 약물 노출이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진은 다발성경화증 동물질환 모델에 IVL4002를 투여한 뒤 질환 중증도와 척수 수초 손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염증에 관여하는 면역세포가 척수로 침윤하는 현상과 신경염증 관련 신호가 줄었고, 혈액뇌장벽 기능이 보존되는 양상도 관찰됐다.

인벤티지랩은 최근 호주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확보했다. 건강한 성인에게 IVL4002를 한 번 피하투여한 결과, 투여 28일 이후까지 혈중 약물 농도가 측정됐고 관찰 기간 내내 변동폭이 좁은 혈중 농도가 유지됐다. 투여 후 중대한 이상사례나 이상사례로 인한 시험 중단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을 대상으로 IVL4002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인벤티지랩은 자가면역질환 예방·치료용 서방형 제형과 관련 방법에 관한 특허를 미국·호주·일본에서 확보했다. 회사는 특히 미국 등록 특허에 따른 기술 권리를 현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벤티지랩은 내년 임상 2상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상 2상에서는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적합한 용량과 투여요법을 탐색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임상 2상 준비와 함께 미국의 잠재 파트너들과 IVL4002 사업화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IVL4002의 효능과 기전 연구 결과를 인정받은 데 이어 임상 1상에서 인체 대상 1개월 지속 노출까지 확인한 만큼, 2027년 임상 2상 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난 7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본사에서 열린 '2026 오스템임플란트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전국 치과대학 장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인재 육성 확대

장학 지원하고 임상 후원 등 강화

오스템임플란트가 미래 치과계 인재 육성과 산업 동반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의학 발전과 학계 협력 고도화를 위해 장학 지원부터 실무 중심 교육, 학술·임상 연구 후원까지 전방위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시작해 올해로 24년째를 맞은 장학사업은 2022년부터 대상을 전국 치과대학에서 치기공(학)과·치위생(학)과까지 넓히며 치과계 전반의 인재 저변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치과대학 누적 수혜자는 약 1600명이며, 전체 장학 수혜 인원은 45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는 장학사업과 실전형 임상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왔다. 2021년 1개 대학으로 출발한 치과대학생 대상 특성화 교육 '익스턴십'은 올해 서울대·연세대·경희대·단국대·경북대·부산대·원광대 등 전국 7개 대학, 총 89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누적 19회 운영을 통해 배출한 수료생만 222명을 웃돈다.

교육 과정은 임플란트 식립과 인상채득,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임상 활용도가 높은 최신 술기를 다룬다. 이론 강의부터 전문가 지도 실습, 실제 수술 참관, 연구소 견학까지 실전형으로 구성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2027년에는 참여 대학을 9~11곳, 교육 인원을 약 22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올리브영,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 전국 확대

취약계층 여성 구매 접근성 개선

CJ올리브영이 전국 1300여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망을 개방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 접근성을 개선한다. 발급 카드사에 따른 결제 문턱을 없애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올리브영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부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리용품 바우처는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다.

올리브영은 이번 사업 참여를 위해 전용 바우처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CJ올리브영 매장에 설치된 여성용품 구역에서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며 쇼핑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발급 카드사별로 가맹점이 제한되던 기존 불편을 해소해 모든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했다. 대상자들은 거주 지역이나 카드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청하 기자

일동제약

신약 글로벌 수출 속도

유럽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 출격

일동제약이 유럽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제프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출격해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수출과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낸다.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며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간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파도프라잔'의 권역별 해외 판권 계약과 '먹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동제약은 지난 16~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제프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가해 주력 신약 후보물질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청하 기자

강스템바이오텍, 골관절염 신약 수출 박차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개발 협의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9~11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파트너링 행사인 '바이오유럽 2026'(BIO-Europe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OSCA)'의 기술수출 및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개발 협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스카는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주사제형 치료제로, 지난 7월 임상 2a상 주요 결과(Top-line)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 말 최종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를 수령했다. 회사는 임상 2a상에서 확인된 혁신적 통증 및 기능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수출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바이오유럽에서는 임상 1상 단계부터 오스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과 임상 2a상 주요 결과 및 최종 CSR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확보한 12개월 추적관찰 일부 데이터 중 주요 지표와 관찰 결과도 추가로 제공하며, 치료 효과의 지속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